



통일신라 四天王寺녹유소조신장상의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Review and Main Issues on Studies of the Glazed Tiles of the Guardian Images at Sacheonwangsa Temple-Site

저자 (Authors)	崔聖銀 Songeun Choe
출처 (Source)	신라사학보 , (26), 2012.12, 165-202 (38 pages) SILLASAHAKPO , (26), 2012.12, 165-202 (38 pages)
발행처 (Publisher)	신라사학회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42554
APA Style	崔聖銀 (2012). 통일신라 四天王寺녹유소조신장상의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신라사학보 , (26), 165-20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03 11:1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통일신라 四天王寺 녹유소조신장상의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崔 聖 銀*

I. 머리말	III. 향후 연구과제
II. 소조신장상에 대한 연구성과	IV. 맺음말

【국문초록】

경주 사천왕사지에서 출토한 녹유소조신장상 벽전(壁傳)은 뛰어난 조형성을 보이는 중대신라 불교조각의 걸작품으로 문무왕 19년(679)이라는 명확한 조성시기와 함께 양지(良志)라는 조각가의 이름까지 전하고 있어서, 그 명칭과 제작기법, 문헌기록, 조각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개진되어왔다. 그런데 2006년부터 시작된 사천왕사지 발굴조사를 통해 소조신장상의 형태는 모두 3종류뿐이며, 동·서 목탑의 기단부에 안치되어 있었고, 한 면에 6구씩 한 탑에 24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소조신장상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해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그 동안 제기되었던 논의와 주장이 일시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 논거를 잃게 된 점은 앞으로의

* 덕성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주요 논저 : <張保臯 선단과 신라하대 불교조각> 《先史와 古代》 32, 2010 : <동아시아 불교조각을 통해 본 百濟 彌勒寺의 佛像> 《百濟文化》 43, 2010 : <신라 皇龍寺 중금당 장육삼존불상에 대한 연구> 《新羅史學報》 23, 2011 외 다수.

고대 불교조각사 연구에서 현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향후 사천왕사 불교조각의 연구는 소조신장상 명칭문제에 편중되었던 기존 연구 단계를 넘어서 사천왕사 불교조각 전체로 연구의 대상이 확대되어 통일신라와 당, 일본 불교조각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동시기의 동아시아 불교조각을 재조명하고 사천왕사 불교조각을 자리매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사천왕사, 녹유소조신장상, 조각승 양지, 사천왕, 팔부중, 신왕, 문두루비법

I. 머리말

경주 남산의 남쪽에 위치한 사천왕사는 신라가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루고 난 뒤 문무왕 19년(679)에 세워진 호국사찰이다.¹⁾ 밀교의 문두루비법을 통해 불법(佛法)의 가호로 당군을 격퇴했다는 삼국통일의 상징적인 사찰로서, 또 그 이후에는 신라 불교행정의 중심인 성전사원(成典寺院)으로서²⁾ 사천왕사는 신라불교사에서 그 이름을 크게 떨

- 1) 《三國史記》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9년. “秋八月 太白入月 角干天存 卒 創造東宮 始定內外諸門額號 四天王寺成 增築南山城.”
- 2) 성전사원은 신라조정에서 불교계를 통제하던 官寺로 생각되는데, 승정기구로서의 통제적 기능과 왕실의 봉사기능, 사원의 경제적 관리를 수행하던 사찰이다. 통일신라시대에 성전사원은 사천왕사를 비롯하여 봉성사, 감은사, 봉덕사, 봉은사, 영묘사, 영흥사, 황룡사의 여덟 곳인데, 이 가운데 사천왕사와 감은사, 영묘사, 황룡사의 4개 사찰만 위치가 확인된다. 통일신라 성전사원에 대해서는 《三國史記》 권38, 잡지7, 직관 상 ; 李泳鎬, <新羅中代 王室寺院의 官寺의 機能> 《韓國史研究》 43, 1983, 81-114쪽 ; 蔡尙植, <新羅 統一期の 成典寺院의 構造와 機能> 《釜山史學》 8, 1984, 81-119쪽 참조. 최근 경주시 인왕동 구 경주교육청 자리에서 ‘봉성’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납석제 뚜껑편이 출토하여 이곳이 奉聖



<도 1> 사천왕사지 원경(《발굴에서 전시까지》, 115쪽 도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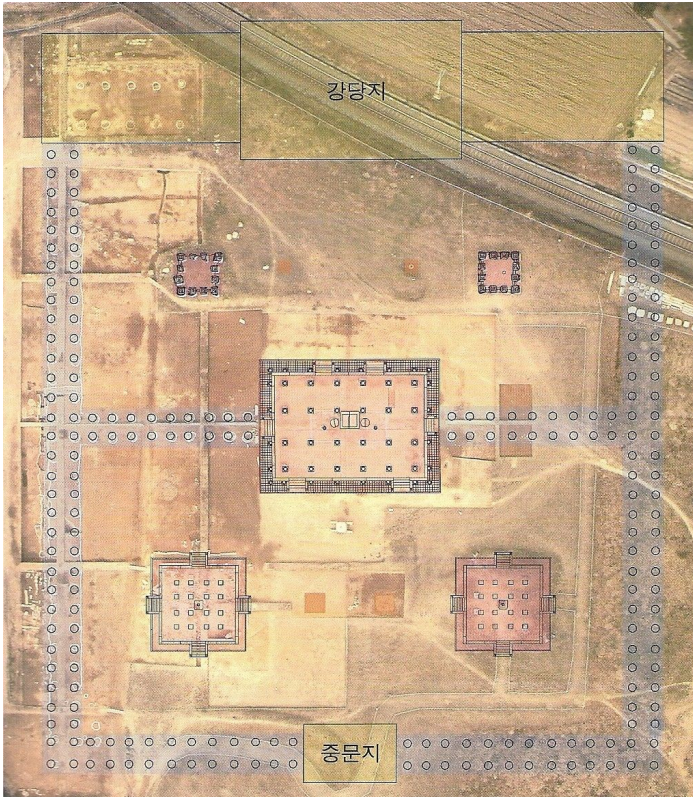
쳤고 조선시대까지 法燈이 이어져 내려왔다.³⁾

사천왕사는 金堂 앞에 목탑이 동서로 배치된 ‘쌍탑식 가람배치’[一金堂二塔式]가 처음 나타나는 사찰로서 그 폐사지(사적 제 8호)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관심이 모여 일제강점기부터 초보적인 발굴이 시작되었고 건축·고고·미술 관련의 여러 논저에 소개되었다(도 1. 2). 특히 절터에서 수습된 유물 가운데 녹유소조신장상 巵博은 비록 여러 조각으로 파괴된 상태였으나 뛰어난 조형성과 높은 완성도를 보이는 중대신라 불교조각의 걸작품으로 주목되었다.⁴⁾ 이 소조신장상은 그 자체로서 뛰어난 조각품일 뿐 아니라 문헌기록을 통해서 문무왕 19년(679)이라는

寺址라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李根直, <통일신라 奉聖寺와 折怨堂> 《新羅史學報》 7, 2006, 65~100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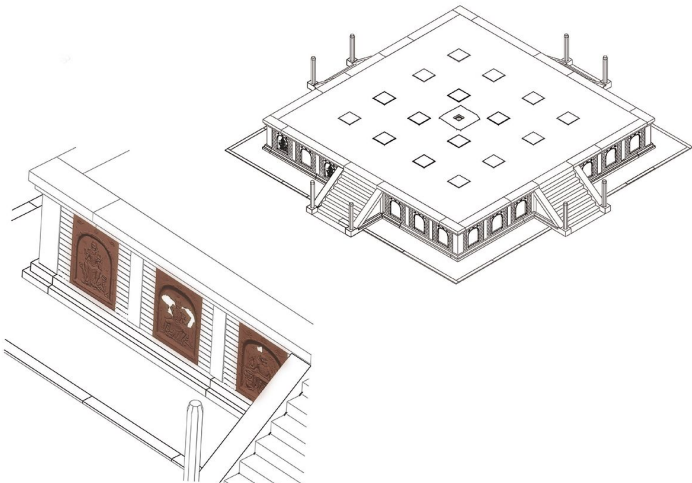
3)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1, 경주부 역원조 麗末鮮初의 문신 河崙(1347~1416)은 그의 《惠利院記》에 경오년에 蔚州로 가기위해 성 남쪽으로 길을 지나 天王寺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4) 본문에서는 이 녹유소조신장상전 또는 벽전을 소조신장상으로 略稱하겠다.



〈도 2〉 사천왕사지 평면(《四天王寺》, 18쪽)

조성시기가 명확하게 알려져 있으며 良志라는 조각가의 이름까지 전하고 있어서 한국 고대 불교조각사의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어 지난 반세기 동안 작품의 유형별 분류와 제작기법 분석, 문헌기록에 대한 해석, 조각가에 대한 고찰 등 다각적인 면에서 논의가 개진되었다. 지금까지 가장 열띤 논쟁의 주제는 소조신장상의 명칭문제였는데, 八部衆說과 四天王說이 팽팽하게 맞서 왔다.



<도 3> 녹유소조신장상의 배치상태, (《四天王寺》, 21쪽)

그런데 2006년부터 시작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사천왕사지 발굴조사를 통해 서탑의 기단구조와 소조신장상의 봉안모습이 확인되면서 그 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사천왕사지 소조신장상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해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발굴의 결과, 소조신장상의 형태는 모두 3종류뿐이며, 동·서 목탑의 기단부에 안치되어 있었고, 한 면에 6구씩 한 탑에 24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도 3). 이에 소조신장상에 대해 그 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견해에 대해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사천왕사 소조신장상에 대한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준비의 하나로서 소조신장상에 관한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소조신장상에 대한 연구성과

1. 사천왕사의 창건배경과 그 신앙

사천왕사가 창건된 시기의 신라의 정치적 상황과 불교신앙, 지리적 위치에 대한 문제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토대로 그 대체적인 윤곽이 파악되었다. 그 개요를 보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 唐에서 군사를 보내 신라를 치려하자 이 급박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신라 조정에서는 밀교승려인 명랑법사에게 청하여 문무왕 10년(670)과 11년(671) 2회에 걸쳐 낭산 남쪽 신유림에 임시로 절을 세워 단석(壇席)을 마련하고 文豆婁秘法の 도량을 설하게 하였다. 당시의 상황은 사천왕사의 창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삼국유사》의 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이듬해 당 고종이 仁間 등을 불러 꾸짖되 “너희들이 우리 군대를 청하여 고구려를 멸하고서 (도리어) 우리를 침해하니 무슨 까닭이나?” 하고 곧 옥에 가두고 군사 50만을 조련하여 薛邦으로 장수를 삼아 신라를 치려고 하였다. 이때 당에 유학 와있던 의상법사가 인문을 찾아보니 그가 그 사실을 말하는지라 의상이 곧 돌아와서 임금에게 아뢰니, 임금이 매우 염려하여 군신을 모아 방어의 계책을 물었다. 각간 金天尊이 아뢰되 “근래에 명랑법사가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배워왔으니 그를 불러 물으소서” 하였다. 명랑이 아뢰되 “낭산 남쪽에 신유림이 있으니 그곳에 사천왕사를 세우고 도량을 개설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때 貞州에서 사람이 달려와 알리기를 “당병이 무수히 우리 국경에 다가와 해상을 순회한다”고 하였다. 왕이 명랑을 불러 가로되 “일이 이미 급박하였으니 어찌하라. 명랑이 가로되 彩帛으로 절을 임시로 만들면 좋겠다”고 하였다. 왕이 채백으로써 절을 꾸미고 풀로 五方神像을 만들고 유가명승 12인으로 하여금 명랑을 우두머리로 하여 문두루비밀의 법을 지으니, 이때 당군과 신라병이 교전하기도 전에 풍랑이 사

납게 일어나 당의 전선이 모두 침몰하였다. 그 후에 절을 고쳐짓고 이름을 사천왕사라 하여 지금까지 단석이 끊이지 않았다[국사에는 이 절의 개창이 조로원년 기묘에 있었다 한다] …5)

위의 사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문두루비법은 唐軍을 물리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여기서 ‘문두루’는 무드라(Mudra)의 음역으로 神印이라고 의역되는데, 문두루법은 악귀를 굴복시키는 비법으로 《佛說灌頂經伏魔封印大神呪經》 권 제7에 의거한 것이다.⁶⁾

天帝釋이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려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에게 말했다. 95가지 道法 가운데 문두루법이 있는데 부처님의 가장 미묘하고 가장 뛰어난 법 가운데는 이 術法이 없으니 오직 원하옵건대 天尊이 방편을 펼쳐 이 어리석은 무리들을 교화해 주옵소서. 그래서 미치지 못한 道眼을 깨치게 해 주시고 모든 위급한 액난과 한량없는 중병을 없애주시고 삼계의 괴로움을 떠나 열반에 오르게 해 주소서. … 부처님이 천제석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이 옳구나. 잘 듣고 잘 이해했노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하여 大仙의 법을 말하겠다 …7)

- 5) 《삼국유사》 권 제2 기이 제2 <문호왕법민> “明年, 高宗使召仁問等讓之曰, 爾請我兵以滅麗, 害之何耶. 乃下圓扉, 鍊兵五十萬, 以薛邦爲帥, 欲伐新羅. 時, 義相師西學入唐, 來見仁問, 仁問以事諭之, 相乃東還上聞, 王甚憚之, 會群臣問防禦策. 角千金天尊曰, 近有明朗法師入龍宮, 傳秘法以來, 請詔問之. 朗奏曰, 狼山之南有神遊林, 創四天王寺於其地, 開設道場則可矣. 時有貞州使走報曰, 唐兵無數至我境, 廻槩海上. 王召明朗曰, 事已逼至如何. 朗曰, 以彩帛假構宜矣. 乃以彩帛營寺, 草構五方神像, 以瑜珈明僧十二員, 明朗爲上首, 作文豆婁秘密之法. 時, 唐·羅兵未交接, 風濤怒起, 唐舡皆沒於水. 後改搆寺, 名四天王寺, 至今不墜壇席. (國史大改搆在調露元年己卯).”
- 6) 朴泰華, <新羅時代의 密敎 傳來考> 《曉城趙明基博士華甲記念 佛敎史學論叢》, 1965 ; 文明大, <新羅 神印宗 研究 - 新羅密敎와 統一新羅社會 - > 《震檀學報》 41, 1976, 187~213쪽 ; 金相鉉, <사천왕사의 창건과 의의> 《新羅와 狼山》,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7, 1996, 134~135쪽 참조.
- 7) 《高麗大藏經》 10, 1276~1277쪽 및 《新修大藏經》 21, 515쪽 ; 文明大, 앞의 논문, 204쪽 참조.

위의 《관정경》에 의하면 문두루법은 부처가 천제석에게 설해준 大仙之法으로⁸⁾ 金銀珍寶나 梅檀木, 香木으로 만든 貝木 문두루에 五方大神의 이름을 적어 문두루법을 행하면 모든 재앙과 악귀를 소멸할 수 있다는 내용이 설해져 있다.⁹⁾ 이 문두루법으로 당병을 물리치게 되자 전승을 기념하여 임시로 단석을 마련해 도량을 펼쳤던 바로 그 자리에 호국사찰 사천왕사를 창건하였던 것이다.

당시 문두루법을 행하였던 명랑법사는 慈藏의 외조카로 당에 건너가서 밀교의 비법을 배우고 635년에 귀국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¹⁰⁾ 또한

- 8) 여기서 大仙은 부처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金相鉉, 앞의 논문, 138~139쪽 참조.
- 9) 金相鉉, 앞의 논문, 138~139쪽 ; 김태식, <文豆婁法과 경주 四天王寺址 출토유물> 《新羅史學報》 21, 2011, 327~330쪽 참조. 그런데 《灌頂經》에서는 설명하는 오방대신은 “첫째가 曠遮阿加로 青衣를 걸치고 東方에 거하면서 靑氣를 토하고, 둘째는 摩訶祇斗로 赤衣를 입고 南方에 거하면서 赤氣를 뿜어낸다. 세 번째는 移兜涅羅이니 白衣를 입고 西方에 거하며 白氣를 뿜고, 네 번째 摩訶伽尼는 黑衣를 입고 北方에 거하면서 黑氣를 토한다. 마지막 烏咄羅孃는 黃衣를 걸치고 中央에 거하면서 黃氣를 뿜는다. 이들 오방대신은 身長이 모두 1장 2척으로 같다.” 김태식, 앞의 논문, 328쪽 ; 《高麗大藏經》 10, 1276~1277쪽. 한편, 지금까지 經樓로 불렸던 금당 뒤쪽 좌우의 작은 건물지에는 정교하게 치석된 12개의 초석에 圓孔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에 貝木을 삽입하여 作法했던 壇席이 아닐까 추정되기도 하였다. 張忠植, <新羅 狼山遺蹟의 諸問題> 《新羅와 狼山》,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7, 1996, 29~30쪽 참조.
- 10) 명랑의 자는 국육이고 아버지는 사찬 金才良이며 어머니는 자장의 누이 동생인 소관 金茂林의 딸인 南澗夫人(法承娘)이다. 세 아들 중 막내로 큰 형은 國敎 대덕이고 둘째는 義安 대덕인데, 의안대덕은 문무대왕대 大書省을 지낸 의안대서성이다. 《三國遺事》에 소개된 금광사본기에 따르면 그는 632년에 唐에 건너가서 밀교의 비법을 배우고 635년에 귀국하였는데, 귀국 길에 海龍의 청으로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전하였으며 용왕으로부터 황금 천 냥을 시주받아 자신의 집을 희사하여 만든 金剛寺의 탑과 불상을 금으로 장식하자 유난히 광채가 났기에 金光寺로 불렸다. 여기서 명랑이 들렸던 용궁이 인도 내지 동남아 방면을 가리킨 것으로도

당시 명랑이 유가명승 12인과 함께 문두루비법을 행한 것은 瑜伽唯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사찰의 이름을 사천왕사라고 한 것은 《金光明經》 <四天王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¹⁾ 《금광명경》은 공식적으로는 성덕왕 2년(703)에 신라에 전해졌으나,¹²⁾ 이미 그 이전에 원효가 隋代에 寶貴 등이 譯出한 《합부금광명경》을 저본으로 하여 《금광명경소》 8권의 주석서를 내고 있어, 명랑과 유가명승들은 이 《합부금광명경》을 바탕으로 절을 이름 짓고 여러 불사를 거행하였다고 생각되고 있다.¹³⁾ 문무왕과 신문왕대에 國老로서 왕실의 존숭을 받았던 憬興 역시 금광명경의 주석서를 편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금광명경은 통일기 신라불교의 중심적인 경전이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¹⁴⁾

해석된다. 명랑이 유학한 시기는 중국과 인도 사이의 무역이 성하여 광동에서 탐마입저국까지 오가는 무역선이나 상선이 있었다고 하므로 명랑이 당을 떠나 동남아 방면을 다녀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三國遺事》 권5, 신주 6, 명랑신인조 ; 《三國史記》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4년 9월조 ; 金福順, <<三國遺事>> ‘명랑신인’조의 구성과 신인종 성립의 문제> 《감동과 신통을 보여준 신라인》,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 論文集 32, 2011, 214~215쪽 참조.

- 11) 文明大, 앞의 논문, 1976, 203-208쪽 참조.
- 12) 《三國史記》 권8, 신라본기8, 성덕왕 3년. 성덕왕 3년(704) 3월에 당에 사신으로 갔던 아찬 金思讓이 귀국하면서 의정이 703년에 번역한 《금광명최승왕경》을 가져왔다.
- 13) 《합부금광명경》에 대해서는 金福順, <신라 중대의 불교> 《新羅文化》 25, 2005, 170-171쪽 참조. 또한 이 경전은 신라통일기에 호국불교를 주도했던 소의경전으로서 통일신라 사찰에 쌍탑이 세워지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는 견해도 새롭게 제기되었다. 韓政鎬, <신라 쌍탑가람의 출현과 신앙적 배경> 《석당논총》 46, 2010, 179~212쪽 참조.
- 14) 즉, 신라 호국불교의 전개는 고신라기의 《인왕경》에 바탕을 둔 ‘백고좌회’에 이어서 중대신라에 이르면 《금강명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호국법회’로 전환되었다고 이해된다. 문무왕과 신문왕대에 國老(國老)로서 왕실의 존숭을 받았던 憬興 역시 《금강명경》의 주석서를 편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금강명경》은 통일기 신라불교의 중심적인

문두루법이 거행되고 사천왕사가 세워진 낭산의 神遊林은 ‘신들이 노니는 숲’이라는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불교전래 이전부터 신성시되던 산으로 전통 무속신앙의 聖所로 생각되는 신령스러운 장소였다.¹⁵⁾ 또한 이곳은 前佛시대의 七處伽藍址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기도 한다.¹⁶⁾ 이 낭산에는 사천왕사가 세워지기 30여년 전에 선덕여왕릉이 조성되었는데, 다음의 사료는 사천왕사의 입지 조건에 대해 알려준다.

선덕여왕이 無病할 때에 군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모년 모월 일에 죽을 터이니 나를 도리천에 묻으라 하였다. 군신은 그곳을 알지 못하여 어디냐고 물으니, 왕이 가로되 낭산 남쪽이라 하였다. 그달 그날에 이르러 과연 왕이 승하하자 낭산 남쪽에 장사지냈더니, 그 후 10여년 후에 문무대왕이 사천왕사를 왕릉 아래에 세웠다. 불경에 사천왕천의 위에 忉利天이 있다고 하였으니 비로소 대왕의 靈聖한 것을 알게 되었다.¹⁷⁾

경전이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金福順, <신라 왕경사찰의 분포와 체계> 《신라왕경의 구조와 체계》, 2006, 124~128쪽 ; 韓政鎬, 앞의 논문, 194~195쪽 참조.

- 15) 辛鍾遠, <《三國遺事》 善德王知幾三事條의 몇 가지 問題> 《新羅와 狼山》,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7, 1996, 59쪽 참조.
- 16) 7處伽藍說은 신라가 불교와 인연이 깊은 국토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서 慶州에 前世 부처님 때의 절터가 7군데 있다는 것이다. 그 첫째는 천경림, 둘째는 삼천기, 셋째는 용궁 남쪽, 넷째는 용궁 북쪽, 다섯째는 사천미, 여섯째는 신유림, 일곱째는 서청전으로, 이 칠처가람지에 세워진 사찰은 흥륜사를 비롯해서 영흥사, 황룡사, 분황사, 영묘사, 담암사, 사천왕사의 일곱 가람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칠처가람지는 신라 무속신앙의 성소로 소도지역 혹은 계장이 있었던 곳으로 생각되고 있다. 《三國遺事》 권3, 흥법3, 아도기라조 ; 辛鍾遠, 《新羅初期佛敎史研究》, 민족사, 1992, 143쪽 ; 金福順, <興輪寺와 七處伽藍> 《新羅文化》 20, 2002, 39~56쪽 ; 《韓國古代佛敎史研究》, 민족사, 2002, 21~44쪽 ; 앞의 논문, 2005, 169~174쪽 ; 《新思潮로서의 신라불교와 왕권》, 경인문화사, 2008, 148~157쪽 참조.
- 17) 《三國遺事》 권1, 기이1, 선덕왕지기삼사. “王無恙時, 謂群臣曰, 朕死於某年某月日, 葬我於忉利天中. 群臣罔知其處, 奏云何所, 王曰, 狼山南也.”

이 기록에서 보면 선덕여왕(632~646년 재위)은 생전에 자신의 능묘 위치를 ‘도리천’이라 언급하고 ‘낭산 남쪽’임을 알렸다. 도리천(Trāyastīmā)은 欲界 6天 가운데 제 2천으로 사바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수미산의 정상에 있으며, 이곳에 머물며 지배하는 神이 바로 帝釋天이다.¹⁸⁾ 또한 도리천 아래의 수미산 중턱에는 사천왕이 거주하는 四王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선덕여왕릉이 있는 낭산의 아래에 사천왕사가 세워진 것은 낭산을 ‘수미산’으로 비정하여 사천왕천과 도리천을 상징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즉, 왕경에 수미산이 있고 도리천과 사천왕천이 있으며 이곳이 前世 칠처가람터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을 통해서 신라의 불국토사상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천왕사의 창건은 당의 군사를 격퇴한 신라의 전승과 삼국통일을 기념하는 의미 뿐 아니라 낭산이 바로 ‘수미산’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하여 신라가 진정한 불국토라는 믿음을 제고시킨 국가적인 佛事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낭산은 불교전래 이전부터 재래의 신들이 노닐던 곳에서 불교의 천신들이 상주하는 산으로 변화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¹⁹⁾

2. 소조신장상의 尊名

사천왕사지에서 일제강점기에 출토되거나 수습된 소조신장상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경주박물관, 일본 고려미술관, 구마모토(熊本)시립미술관 등에 나뉘어져 소장되어 있으며 최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실시한 발굴에서 출토된 벽전 片들을 통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높이 90cm, 폭 70cm, 두께 약 7~9cm 크기의 왼손에 劍을 든 A형 신장상, 왼

至其月日王果崩，群臣葬於狼山之陽。後十餘年文虎大王創四天王寺於王墳之下，佛經云，四天王天之上有利天，乃知大王之靈聖也。”

18) 《望月佛敎大辭典》 4, 東京：世界聖典刊行協會, 1936, 3920~3922쪽 참조.

19) 辛鍾遠, 앞의 논문, 1996, 59쪽 ; 金福順, 앞의 논문, 2011, 217쪽 참조.

손에 활, 오른손에 화살을 쥔 B형 신장상, 오른손에 칼을 든 C형 신장상의 세 가지 형식의 도상 복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도 4, 5, 6).²⁰⁾ 그런데 일제강점기에는 소조신장상이 하반신(혹은 가슴부터)만 발견되었고 몸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상은 2구였는데, 현재 A형으로 분류되는 왼손에劍을 든 신장상과 B형으로 분류되는 왼손에 활, 오른손에 화살을 든 신장상이 그것들이었다.²¹⁾ 그러다가 1936년 3월 철도공사 중에 A형 신장상의 하체가 다시 또 한구 발견되었다.²²⁾



〈도 4-1〉 녹유소조신장상
A형(《四天王寺》, 23쪽 도판)



〈도 4-2〉 녹유소조신장상 A형의 3D
스캔(《四天王寺》, 22쪽 도판)

20) 崔장미·車順喆, <2006년도 사천왕사지 발굴조사의 성과와 의의> 《新羅史學報》 8, 2006, 279~296쪽; 《四天王寺》,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국립경주박물관, 2009, 20~33쪽 참조.

21) 《朝鮮古蹟圖譜》 5, 朝鮮總督府, 1917; 《朝鮮古蹟調查報告書》 1, 朝鮮總督府, 15~23쪽 참조.

22) 奥平武彦, <慶州四天王寺出土 綠釉四天王像の髻> 《茶わん》 6-7, 1936, 14~22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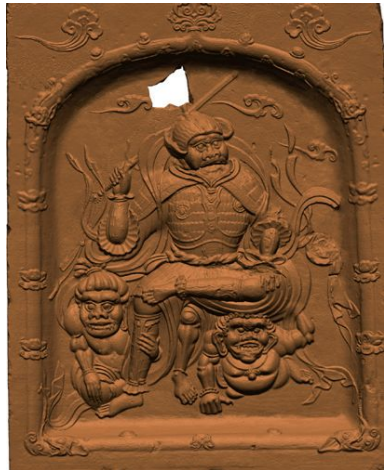
〈도 5-1〉 녹유소조신장상 B형(《四天王寺》, 27쪽 도판)



〈도 5-2〉 녹유소조신장상 B형의 3D 스캔(《四天王寺》, 26쪽 도판)



〈도 6-1〉 녹유소조신장상 C형(《四天王寺》, 31쪽 도판)



〈도 6-2〉 녹유소조신장상 C형의 3D 스캔(《四天王寺》, 30쪽 도판)

이 상들은 사천왕사지에서 출토되었을 뿐 아니라 갑옷을 입고 있고 무기를 들고 있어 처음부터 사천왕상으로 생각되었으며, 총독부박물관에 전시될 때에도 ‘사천왕상’으로 소개되었다.²³⁾ 《조선고적도보》와 《박물관진열품도감》에 실린 소조신장상의 명칭은 현재 A형으로 분류되는 신장상을 지국천왕(동방)으로, B형으로 분류되는 신장상은 증장천왕(남방)으로 기재되었다.²⁴⁾ 사천왕사지 유구의 현상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한 《대정십일년도고적조사보고》 제1책(1922년)에 실린 글에서도 앞의 도록들에서 소개된 것처럼 소조신장상 2구를 증장천과 지국천으로 소개하고 있다.²⁵⁾

그런데 이와는 달리 소조신장상들을 사천왕이 아닌 팔부중으로 본 견해도 있었다. 신장상의 존명을 삼국유사의 기록에 근거하여 ‘팔부중’이라고 보았던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는 이 신장상들이 두 무리로 나뉘어져 각 탑 1층 탑신 내부의 四天柱 사이에 한 구씩 안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²⁶⁾ 그러나 당시는 발견된 소조신장상의 파편도 적었고 사천왕사의 독특한 遺構와 쌍탑식 가람배치와 같은 건축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이 컸던 시기였기 때문에 소조신장상의 존명에 대한 연구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²⁷⁾ 따라서 이후 대부분의 논저에서 소조신장상의 존명은 ‘사천왕

23) 《博物館陳列品圖鑑》 1, 朝鮮總督府, 1918 ; 《博物館陳列品圖鑑》 2, 朝鮮總督府, 1919.

24) 《朝鮮古蹟圖譜》 5, 朝鮮總督府, 1917 ; 《博物館陳列品圖鑑》 1, 朝鮮總督府, 1918 ; 《博物館陳列品圖鑑》 2, 朝鮮總督府, 1919 ; 《朝鮮古蹟調查報告書》 1, 朝鮮總督府, 15~23쪽 ; 奧平武彦, 앞의 논문, 14~22쪽 참조.

25) 이 보고서에서는 사천왕사지에서 현재 壇席址로 불리는 건물지까지도 塔址로 이해하여 탑이 4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사천왕과 4기의 탑이 서로 연관을 가질 것으로 보았다.

26) 藤島亥治郎, 《朝鮮建築史論》, 1930(영인본), 경인문화사, 1969/1973, 57쪽 참조.

상'으로 이어져 왔고 高裕燮도 그의 《조선탑과의 연구》에서 소조 사천왕상이 壁間에 嵌飾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²⁸⁾ 이는 1964년에 秦弘燮이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된 정면향의 B형 신장상의 얼굴부분 파편을 소개하면서 '사천왕상'으로 부른 것에서도 알 수 있다.²⁹⁾

여기에 대해서 소조신장상의 八部衆說은 1973년에 文明大에 의해 발표된 <양지와 그의 작품론>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³⁰⁾ 이 글에서는 조각가 양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찰하면서, 탑신부 1층 혹은 1층 내부의 사천주 4면일 것이라는 안치장소에 대한 기존의 설에 대해서 기단부에 봉안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기단에 배치되었다면 팔부중이어야만 가능한데, 그 근거로서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경우 기단부에는 항상 坐像의 팔부중상이 조각되고 탑신부에는 立像의 사천왕상이 조각되는 점을 지적하였다.³¹⁾ 특히, 이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로서 《삼국유사》의 '良志使錫'조에 실린 양지의 작품 가운데 '천왕사탑하팔부신장'이라는 기록을 꼽았다.

문명대의 팔부중설에 대해서 일제강점기에 알려졌던 사천왕설이 다시 제기된 것은 1979년 姜友邦에 의해서였다. 소조신장상을 사천왕상으로 보았던 그는 통일신라 석탑에서 사천왕이 초층 탑신부에 부조되는 점을 예로 들어 목탑 1층 내부의 사천주 네 벽의 각 면에 감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³²⁾ 강우방은 寶冠을 쓰고 있고 악귀를 깔고 앉아 있는 圖像

27)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1, 朝鮮總督府, 1922, 15~23쪽 참조.

28) 高裕燮, 《조선탑과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8, 12~13쪽 참조.

29) 秦弘燮, <四天王像巖窟의 一例> 《考古美術》 2-3, 통권 8호, 1964, 90쪽 참조.

30) 文明大, <良志와 그의 作品論> 《佛教美術》 1, 1973 : <신라조각장 양지론> 《원음과 적조미》 한국의 불상조각 3, 예경, 2003, 13~35쪽.

31) 또한 B형 신장상의 투구에 장식된 鳥翼은 팔부중 가운데 鳥頭人身의 무리를 상징하는 迦樓羅(Garuda)의 도상으로 석굴암 팔부중상을 비롯한 석탑 기단부 팔부중상의 예가 다수 전하는 점을 들어 소조신장상들이 사천왕이 아닌 '팔부중'임을 주장하였다. 文明大, 앞의 논문, 1973, 7~8쪽 참조.

을 지적하여 소조신장상들을 사천왕상으로 보고, 단순히 탑의 장식으로서가 아니라 호국사찰이었던 사천왕사의 중심으로서 조성되었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팔부중이 유행하는 것은 신라하대 9세기 중엽부터라는 점도 지적하며, 소조신장상 한 구가 활과 화살을 들고 있는 표현을 통일신라말의 화엄사 서오층석탑의 탑신부에 새겨진 사천왕상과 고려시대의 부석사 조사당 벽화 사천왕상의 예를 들어 비교하여, 사천왕의 증장친(남방)과 문두루의 오방신이 혼합된 형상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양지가 조성한 작품 가운데 “천왕사탑하팔부신장”을 언급한 일연스님의 기록은 양탑에 봉안된 사천왕상을 팔부중으로 誤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³³⁾

사실 이와 같은 추정은 강우방의 실증적인 조사 결과와도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국립경주박물관과 중앙박물관 소장의 소조신장상의 斷片들을 종류에 따라 네 그룹으로 분류하고 이 파편들을 이어서 2개의 복원도를 작성하였다(도 7, 8). 이 조사 당시 분류된 네 그룹의 파편에서 제1 유형은 18점, 제2 유형은 25점, 제3 유형은 19점, 제4 유형은 1점이었고, 마지막의 제 4유형으로 분류된 1점의 파편은 신장상 龕室의 테두리였다. 또한 施釉된 파편들의 분류를 통해서 세 종류의 조각상이 각각 6~7체씩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³⁴⁾

32) 이와 같은 추정은 일찍이 후지시마가 소조신장상이 4구씩 나뉘어져 양탑의 사천주 사이에 안치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것과 같다. 다만, 후지시마는 이 소조상들을 팔부중으로 생각했고 강우방은 사천왕으로 본 점에서 차이가 있다. 姜友邦, <사천왕사지 출토 채유사천왕부조상의 복원적 고찰: 오방신과 사천왕의 조형적 습합현상> 《美術資料》 25, 1979, 27~28쪽 : 《원융과 조화》, 열화당, 1990, 159~201쪽.

33) 藤島亥治郎, 앞의 책, 57쪽 참조.

34) 이와 같은 실증적인 조사·분석의 결과 소조신장상의 종류가 세 종류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 존명을 “사천왕상”으로 추정하게 되었던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결론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姜友邦, <新良志論 良志의 활동기와 작품세계> 《美術資料》 47, 1991, 7~27쪽 : 《법공과 장엄》,



〈도 7〉 소조신장상 A의
추정복원도(강우방, 1979, 10 쪽 도면5)



〈도 8〉 소조신장상 B의
추정복원도(왼팔부분은 제외 강우방 1979,
11쪽 도면6; 《발굴에서 전사까지》 998).

결국 소조신장상이 세 종류였음은 이 조사에서 이미 밝혀졌던 셈이다.

이와 같은 팔부중설과 사천왕설에 대해서 1990년 崔聖銀은 도상학적으로 볼 때 7세기는 팔부중의 도상이 완성되기에 다소 이른 시기이고, 중국과 일본의 작품에서 의외의 사천왕, 팔부중 도상이 발견되므로 도상에 따른 명칭확정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³⁵⁾ 한편, 沈盈伸은 1993년 이들 소조신장상을 사천왕으로 보고, 이 상들의 반가좌와 倚坐의 형식이 “사천왕이 반가부좌하고 있다”고 설명한 《一字佛頂輪王經》(705년 菩提流支 譯)의 내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경전이 譯出된 시기보다 연대가 앞서는 사천왕사지 소조신장

열화당, 2000, 147~153쪽 참조.

35) 崔聖銀, <韓國彫刻史研究 30年 : 統一新羅~朝鮮> 《美術史學研究 韓國美術史研究 30年 : 回顧와 展望》 188, 1990, 94쪽 참조.

상의 경우는 경전보다 먼저 畫本이 전해지면서 착오에 의해 의좌와 반가좌 형태가 함께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였다.³⁶⁾

《삼국유사》에는 양지스님이 선덕여왕 때 활동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작품으로 언급된 사천왕사지 소조신장상과 석장사지출토 전불상이 7세기 후반의 양식을 보이므로 《삼국유사》의 내용보다는 작품 자체에 대한 분석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강우방의 견해에 대해서 이후 2001년 문명대는 팔부중설을 주장하는 추가논의를 개진하였다.³⁷⁾ 《삼국유사》 <양지사석조>에 양지의 작품으로 기록된 천왕사탑 아래의 ‘팔부신장(팔부중)’이 ‘사천왕’의 誤記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일연스님이 양지의 작품을 나열하면서, 영묘사의 천왕상(사천왕), 법림사의 좌우 金剛神(금강역사) 등, 사천왕사 팔부중 외에도 사천왕, 금강역사를 구분하여 기록한 점을 들었다. 다음으로 사천왕사에는 사천왕상이 주요 예배존상으로서 금당에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만약 《삼국유사》에 기록된 경명왕 때 활줄이 끊어졌다는 사천왕사의 소조 五方神³⁸⁾이 금당에 봉안되었다면 금당 앞에 놓인 좌우탑의 기단부에 다시 사천왕상이 배치되는 것은 사천왕사의 格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³⁹⁾

존명에 대해 두가지 견해가 제기되었던 지난 30년 동안 국립중앙박

36) 沈盈伸, <통일신라시대 四天王像 연구>, 弘益大學校 석사학위논문, 1993 : 《美術史學研究》 216, 1997, 5~47쪽.

37) 文明大, <新羅 大彫刻匠 良志論에 대한 새로운 해석> 《美術史學研究》 232, 2001, 5~20쪽 : <신라조각장 양지론> 《원음과 적조미》 한국의 불상조각 3, 예경, 2003, 36~48쪽.

38) 《三國史記》 권12, 신라본기12, 경명왕 3년조 ; 《三國遺事》 권2, 기이 2, 경명왕조 “<四天王 寺五方神弓弦皆絕>”.

39) 文明大, 앞의 논문, 2001, 17~19쪽 ; 《남원 실상사 백장암 시굴 및 금당지 주변 발굴조사보고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1, 149~159쪽 참조.



〈도 9〉 사천왕사 동탑지 동면의 발굴된 상황 (《四天王寺》, 17쪽 도판)

물관 도록을 비롯한 여러 논저에서 소조신장상의 명칭은 계속해서 ‘사천왕상’으로 소개되었다.⁴⁰⁾ 그러다가 2006년 실시된 사천왕사지 서탑 발굴조사를 통해 소조신장상 巒博이 탑의 기단부를 장엄한 면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도 9). 이어서 2008년의 동탑지 발굴에서 탑의 기단 네 면에 중앙 계단을 중심으로 세 종류의 소조신장상이 좌우 3구씩, 각 면에 모두 6구가 놓였던 배치상태가 뚜렷하게 밝혀지게 되면서,⁴¹⁾ 지금까지의 사천왕설과 팔부중설을 포함해서 소조신장상의 명칭문제에 대한 재논의가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상황이 되었

40)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 국립중앙박물관, 2008, 32~36쪽 ; 《발굴에서 전시까지》,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청, 2007, 114~125쪽 ; 《래여애만다라》, 동국대학교 건학100주년 기념 소조불 특별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2006, 36~38쪽 참조.

41)崔장미·車順喆, 앞의 논문, 287~288쪽; 《四天王寺》, 20~33쪽 참조.

다(도 3).

우선, 소조신장상의 종류가 앞서 강우방의 유물조사 때에 나타났던 것처럼 세 종류뿐이었고, 사천왕설을 뒷받침할 만한 네 번째 신장상이 없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사천왕은 반드시 네 구가 한 조로 표현되기 때문에 신장상이 세 종류 뿐이라는 것은 이 소조신장상의 존재가 사천왕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결국 탑의 기단부라는 봉안 위치가 사천왕 존송을 목적으로 창건된 이 절의 주요 예배상인 사천왕의 尊格에 부합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소조신장상이 탑의 기단부에 봉안되어 있으므로 삼국유사에 언급된 양지스님이 조성한 ‘천왕사탑하팔부신장’인 것은 분명해졌으나 탑기단부의 한 면에 6구씩 모두 24구가 봉안되었다는 점은 한 면에 2구씩 네 면에 모두 8구 표현되는 통일신라 석탑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의아한 일이었다(도 5). 이와 같은 발굴결과에 대해 朴亨國은 상 자체의 도상에서 볼 때 寶塔을 持物로 든 북방 多聞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조신장상들이 ‘팔부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팔부중설을 지지하였다.⁴²⁾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소조신장상의 존재가 사천왕도, 그렇다고 팔부중도 아니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⁴³⁾ 2008년 林玲愛는 현존 예가 없는 상황에서 7세기 후반에 팔부중상이 존재하였는지 자체가 회의적이며, 사천왕사 소조신장상의 투구와 관, 지물, 악귀를 깔고 앉은 모습이 唐代 9세기 사천왕상의 형식과 같다는 점에

42) 朴亨國, <韓國의浮彫形態의佛教集合尊像に關する綜合調査> 《平成16年度-平成18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 基盤研究B 海外學術研究成果報告書》, 2008, 397쪽 참조.

43) 林玲愛, <四天王寺址 塑造像의 尊名> 《美術史論壇》 27, 2008, 7~32쪽 참조.

서 679년에 조성된 팔부중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상들은 《관정경》에 자주 등장하는 ‘神王’이라고 보았다. 신왕의 종류와 수는 셀 수 없이 많은데 각종 수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로서 특히 탑을 수호하는 신왕으로 ‘護塔善神’을 꼽았다. 그리고 일연스님이 사천왕사의 소조신장상을 팔부중으로 본 것에 대해서는 이 상들을 신라 하대 석탑의 기단부에 배치되는 팔부중상의 전단계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였다.⁴⁴⁾

사천왕사지 소조신장상의 존명에 대한 여러 논의를 정리하면, 탑의 기단부가 발굴되기 전에 제기되었던 사천왕설과 팔부중설 가운데 사천왕설은 소조신장상이 탑 기단부에 놓여있어 位格에 맞지 않고, 네 종류가 아닌 세 종류로 24구나 안치되어 숫자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으며, 보탑을 들고 있는 북방의 다문천왕 형식이 없다는 점에서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한편, 팔부중설은 삼국유사에 언급된 ‘천왕사탑하 팔부신장’이라는 기록에도 불구하고 신라하대 석탑의 기단부에 장식된 팔부중상에서처럼 8구가 아니라 한 면에 6구씩 24구라는 사실 때문에 다소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이에 사천왕이나 팔부중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신왕 또는 호법선신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는데, ‘신왕’이 어느 특정한 존명을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라 신(神)의 존칭인 보통명사라는 점에서는 앞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1년에 절터 남쪽에 발견된 <사천왕사사적비> 로 추정되는 碑片에는 ‘神將’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소조신장상의 존명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한다.⁴⁵⁾

44) 林玲愛, 앞의 논문, 28~31쪽 참조.

45) 사천왕사지 남쪽에 있는 龜趺 2기 가운데 동편 귀부 앞쪽 기단의 석열에서 螭首片과 함께 발견된 碑片은 가로 55cm, 세로 11cm, 두께 14cm 크기로 비문은 해서체로 2-2.5cm 크기이다. 확인된 글자는 神將, 大王, 十六日, 巨嶽, 特, 道, 而, 疆, 月, 徹, 英 등의 30자 정도이다. 김태식, 앞의 논문,

3. 조각가 양지의 신분과 출신배경

소조신장상의 존명에 대해 이처럼 활발한 논의가 개진되어왔던 것은 탑 기단 면석의 부재로 제작된 이 신장상이 조각적으로 매우 뛰어난 작품일 뿐 아니라 ‘양지’라는 당대 최고의 조각가에 의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양지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양지스님은 그 조상과 출신지를 알 수 없고 오직 선덕왕조에 사적을 나타냈다. 석장 위에 한 포대를 걸어두면 석장이 저절로 날아 시주의 집에 가서 흔들리며 소리를 내었다. 그 집에서 알고 齋費를 넣되 포대가 차면 날아 돌아왔다. 그러므로 그가 있던 곳을 ‘석장사’라고 하였다. 그의 헤아릴 수 없는 신이함이 모두 이와 같았다. 한편 잡예에도 능통하여 신묘함이 비길 바 없었으며 또한 글씨도 잘 썼으며 영묘사의 장륙삼존, 천왕상, 전탑의 기와와 천왕사 탑 아래의 팔부신장과 범림사의 주불삼존, 좌우 금강신 등이 모두 그가 만든 것이다. (또 그는) 영묘사와 범림사의 현판을 썼으며 또 일찍이 磚을 조각하여 한 작은 탑을 만들고 거기에 삼천불을 새겨 그 탑을 절 안에 안치하고 致敬하였다. 그가 영묘사의 장륙상을 만들 때에 入定에서 正受의 태도로 揉式을 삼았으므로 城中의 사녀가 다투어 진흙을 날랐다. 風謠에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서럽더라 서럽도다 이 몸이여 공덕 닦으러 온다” ...⁴⁶⁾

332~334쪽 참조.

- 46) 《三國遺事》 권4, 의해5, <양지사식>조. “釋良志, 未詳祖考鄉邑, 唯現迹於善德王朝. 錫杖頭掛一布帔, 錫自飛至檀越家, 振拂而鳴, 戶知之納齋費, 帔滿則飛還. 故名其所住曰錫杖寺, 其神異莫測皆類此. 旁通雜響, 神妙絕比, 又善筆札. 靈廟丈六三尊·天王像并殿塔之瓦, 天王寺塔下八部神將, 法林寺主佛三尊·左右金剛神等, 皆所塑也. 書靈廟·法林二寺額. 又嘗影磚造一小塔, 竝造三千佛, 安其塔置於寺中, 致敬焉. 其塑靈廟之丈六也, 自入定以正受所對爲揉式, 故傾城士女爭運泥土. 風謠云, 來如來如來如, 來如哀反多羅, 哀反多矣徒良, 功德修叱如良來如. 至今, 土人春相役作皆用之, 蓋始于此. 像(初)成之費, 入穀二萬三千七百碩(或云)(改)金時租. 議曰, 師可謂才全德充, 而以大方, 隱於末技者也. 讚曰, 齋罷堂前錫杖閑, 靜裝爐鴨

앞의 글에 의하면 그는 승려이면서 조각가, 서예가로 널리 이름을 떨쳤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그의 가계에 대해서 문명대는 “未詳祖考鄉邑”라는 삼국유사의 기록에서 볼 때, 밀교승려이자 彫刻匠이었던 그가 진골귀족 같은 신라의 지배계급 출신은 아닐 것이라고 추정하며,⁴⁷⁾ 그가 제작한 작품 가운데는 영묘사 전탑 기와, 석장사 탑상진과 같은 瓦塼類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토기공, 瓦工 같은 匠人계통의 가계출신이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이상화된 사실적인 양식은 중앙아시아적인 요소도 보이며, 唐 내지는 인도 굽타양식을 받아들여 독자적으로 완성된 작품이라고 이해하였다.⁴⁸⁾ 나아가 조각의 제작을 통해서 경주의 백성들을 감화시킨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진 위대한 匠人이자 고승이었다고 결론지었다.⁴⁹⁾

한편, 장충식은 神通을 구사했던 밀교의 고승이었던 양지의 조상과 고향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가계가 한미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문명대의 견해를 반박하였다. 그리고 석장사지 출토 유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상들의 양식에서 인도·중앙아시아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지는 서역을 여행하거나 서역에서 불

自焚檀。殘經讀了無餘事，聊塑圓容合掌看。”

47) 여기에는 ‘양지’를 ‘바치’로 보아 기술자출신으로 이해했던 양주동의 해석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 梁柱東, 《增訂 古歌研究》, 일조각, 1965 ; 문명대, 앞의 논문, 1973. 이것은 당시의 예술가들 혹은 승려예술가들의 신분에 대한 문제로도 연결되는데, 《삼국사기》 열전에 실린 率居, 金生, 百結선생, 勿稽者 등이 모두 寒微한 배경이거나 평민[良人]이었던 인물들이라는 점과 같다고 보았다. 文明大, <삼국사기 미술사 사료의 검토> 《三國史記의 原典 檢討》, 1995, 125~140쪽 ; 辛鍾遠, <삼국유사<양지사석>조 註釋> 《古文化》 40·41, 1992, 81~93쪽 참조.

48) 文明大, 앞의 논문, 1973, 21~22쪽 참조.

49) 文明大, 앞의 논문, 1973, 6, 23쪽 ; 앞의 논문, 2001, 9~10쪽 참조.

교미술의 수련을 쌓아 서역적 조각유품을 지니게 된 국제적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⁵⁰⁾

강우방은 양지가 통일초 소조불상조각의 붐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영묘사 전탑의 기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瓦工으로서도 크게 활약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의 작품에서 唐의 요소와 서역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점을 들어 양지가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통일신라로 귀화한 소조불상 제작기법에 통달한 외래인(서역인)일 것으로 추정하였다.⁵¹⁾

여기에 대해 문명대는 재차 발표한 양지론에서 양지의 작품을 서역 양식과 연관시키거나 더 나아가 그가 서역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반박하였다. 즉, 양지의 가게가 문헌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외래인(서역인)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으며 그의 작품에서는 인도나 서역 양식보다 중국 당 양식과의 연관성이 크므로 신라의 전통 양식을 바탕으로 인도굽타 양식으로부터 영향받은 당 양식을 받아들여 완성한 작품이라고 이해한다면 양지를 서역인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⁵²⁾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양지의 활동시기이다. 과연 양지는 통일기에만 활동한 인물이었는가? 문명대는 양지가 선덕여왕대(632~646년 재위)로부터 문무왕대(661~681년 재위)까지 활동하였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서 양지의 작품으로 알려진 영묘사 장육삼존과 천왕상, 전탑의 기와, 영묘사액 가운데 영묘사 장육상이 선덕여왕 때의 양지 작품이라는 것이 《三國遺事》 <선덕왕>조, <양지법

50) 張忠植, <錫杖寺址 出土遺物과 釋良志의 彫刻 遺風> 《新羅文化》 3·4, 1987, 88~93쪽 : 《한국 불교미술 연구》, 시공사, 2004, 55~72쪽 참조.

51) 문헌기록에 그의 국적이나 가게, 연령에 대한 언급이 없고 틀로 만든 소조는 인도서역적인 것이며, 양지의 조각양식이 서역적인 뿐 아니라 당 요소도 표현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姜友邦, 앞의 논문, 1991, 22~25쪽 참조.

52) 文明大, 앞의 논문, 2001, 12~13쪽 참조.



〈도 10〉 석장사 소조신장상 벽전, 통일신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래여매반다라》, 도 26)



〈도 11〉 감은사 사리기 외함 사천왕상, 통일신라 682년, 국립경주박물관(《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 도 13)

사전>, <양지사석>조, <양지전> 등 여러 기록에서 확인되는 점을 들었다. 현존하는 불교조각 가운데 양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것은 석장사 소조신장상 甃(도 10)과 塔像甃, 감은사 사리기의 외함 사천왕상(도 11)과 내함 팔부중상, 능지탑 소조여래좌상 등을 꼽았다.⁵³⁾ 여기에 대해서 강우방 역시 양지의 작품으로 사천왕사지 소조신장상 외에 감은사 사리기 외함의 금동사천왕상과 석장사지출토 소조신장상편을 꼽아 앞에서 제기된 문명대의 견해와 같은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현존하는 양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유물들, 즉 석장사지출토 소조신장상편이나 감은사 사리기 사천왕상 등은 모두 통일초의 사실적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양지의 활동시기를 7세기 후반의 문무왕대와 신문왕대(681~692년 재위)까지로 내려서 보았다.⁵⁴⁾

53) 文明大, 앞의 논문, 1973, 12~20쪽 : 앞의 논문, 2001, 14~15쪽 참조.

이처럼 양지의 활동시기와 출신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제기되었으나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에서 사천왕사 소조신장상 외에도 감은사 사리기 사천왕상(도 11)과 석장사지출토 소조신장상벽전(도 10)과 탑상전 등을 양지의 작품으로 인정하여 포함시켰고, 이 작품들에서 중앙아시아적인 요소와 인도 굽타 양식적 요소, 당 요소가 발견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양지에 의해 통일신라 불교조각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양지는 신라 통일기에 중앙왕실에서 발원하여 창건한 사찰의 여러 불사에 참여한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조각가였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양지는 실제 작업에 있어 다수의 후배 조각장들을 거느리고 소조신장상의 제작을 총괄, 지휘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1979년에 발표된 강우방의 논문에서 사천왕사 소조신장상의 파편을 세밀하게 조사한 결과 신장상 테두리의 기둥모양 장식의 폭이나 花紋, 龍頭 장식의 크기가 상마다 다른 점을 지적하며 제작자 그룹이 다양하고 여러 사람이 참여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48구에 이르는 소조신장상의 제작은 틀에서 찍어낸 신장상들을 초별구이를 거쳐 녹유를 입혀 다시 소성해야하는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 했으므로 한두 명의 조각장으로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이다.

4. 소조신장상의 제작기법

소조상들의 제작기법에 대해 고찰을 처음 시도한 것은 강우방이다. 그는 녹유소조신장상의 제작에 범(조각틀)이 사용되었고 범에 찍어서 같은 상을 여러 구 제작했던 것을 밝혔는데, 파편의 다양한 소성상태

54) 姜友邦, 앞의 논문, 1991, 5~18쪽 참조.

를 통해서 사찰 인근에 가마(窯)가 설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⁵⁵⁾ 소조신장상의 범은 목범이 아닌 도범으로 추정했다. 즉, 먼저 흙으로 상을 제작한 뒤에 이를 소성하여 원형을 만들고, 여기에 다시 흙을 덧씌워 암틀을 여러 벌 만든 다음 이를 구워서 모양이 같은 범을 준비하여, 여기에 흙을 채워 넣어 최종적인 상을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때 상의 표면이 되는 부분은 입자가 고운 소형토를 채우고 점차 입자가 거친 흙을 넣는 방식으로 단계별로 세 종류의 흙을 넣어 만들었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소조 범에 채워진 최종 부조판은 단단하게 두드린 다음에 실로 뒷면을 평평하게 정리했던 것으로 보았다. 이 제작기법은 일반적인 와전의 제작기법과 동일하며, 입자가 다른 두세 종류의 흙을 사용하는 것은 소조불상의 제작기법과 같다.

또한 시유방법이나 유약의 성분, 소성과정에 대해서도 주목하여 소조신장상의 파편을 시유상태에 따라 녹유를 시유한 것, 녹유 위에 갈유를 시유한 것, 시유하지 않은 것 등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소조신장상은 처음에 녹유를 시유하고 그 위에 다시 갈유를 시유한 것이며 이 때 시유된 유약은 鉛釉계통이 아닌 灰釉일 가능성이 크고 1000°C 정도의 온도로 산화염에 의해 소성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녹유 위에 왜 다시 갈유를 입혔는가는 의문으로 남겨놓았다.⁵⁶⁾

그런데 사천왕사지 발굴과 함께 이루어진 최근의 과학적 분석에서 소조신장상에 ‘녹유’만을 시유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녹유 위의 갈유층은 녹유가 풍화되면서 주변으로부터 유입된 물질들과 반응하여 형성된 風化產物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녹유의 납산화물(PbO)의 함량은 평균 75.37~78.93%에 달하며 유약의 용융온도는 950~1070°C

55) 실제로 절터에서 100여미터 떨어진 곳에서 가마의 벽체가 발견되었으나 소조신장상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56) 강우방, 앞의 논문, 1979, 30-33쪽 참조.

정도로 추정되었다.⁵⁷⁾ 따라서 소조신장상의 제작 과정은 范으로 제작한 상을 초벌소성한 뒤에 녹유를 시유하여 다시 소성하는 두 단계의 공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강우방의 분류에서 시유되지 않았다고 보았던 無釉 단편에서도 납 성분이 검출되어 원래 시유되었던 녹유가 열화되어 떨어져 나간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보존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소조신장상에 시유되었던 녹유의 함량 분석과 그에 대한 해석에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소조신장상의 제작기법에 대해서도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문제는 중대신라 초기의 瓦塼의 발달단계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조신장상의 제작기법과 관련한 강우방의 연구는 유물에 대한 세밀한 실증적인 조사와 분석, 복원도 작성(도 7, 8) 등, 이후 사천왕사지의 소조신장상 연구에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Ⅲ. 향후 연구과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천왕사 소조신장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존명 중심으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 몇 가지 문제를 남겨 놓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명칭문제 관련해서는 우선, 그 존명이 무엇이든 그에 앞서 신장상의 도상이 세 종류인 이유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가 밝혀 그 도상의 원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천왕상 이외에는 다른 신장상의 도상이 확립되지 않았던 7세기 후

57) 이한형·정민호·문은정·박지연·김수경·최장미·한민수, <경주 사천왕사지 녹유전의 녹유 특성 연구> 《文化財》 44-3, 2011.9, 112~131쪽 참조.

반에, 신라에서 사천왕보다 하위개념의 신장을 표현해야할 경우, 과연 어떤 도상을 範本으로 하여 표현할 수 있었을지도 당과 일본의 작품에 대한 세밀한 비교, 검토를 통해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명칭문제를 넘어서 소조신장상의 양식과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는 동 시기의 소조불 제작 기법 및 양식 관련하여 연구가 미진한 상태의 우리 미술사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소조신장상은 이전에는 볼 수 없던 놀라운 사실성과 수준 높고 세련된 조형감을 보여주며 인도 굽타시대 조각의 영향을 받은 당 양식이 반영되어 있다거나 서역풍의 양식이 발견된다고 이해되어 왔다. 신라의 양지스님의 작품도 대부분 소조상으로서 그가 활동했던 신라통일기를 전후해서 신라지역에서 소조상 제작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는데, 양지의 작품에서 새로운 조각양식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통일초 신라 불교조각의 흐름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와 백제지역에서 신라의 중앙으로 모여든 장인들이 삼국말·통일 이후의 소조불 제작기법 및 양식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⁵⁸⁾ 소조불상의 전통은 보다 이른 시기부터 고구려와 백제에서 확립되어 있었다. 평양 元五里 절터에서 출토한 소조불보살상을 비롯해서 평양 토성리출토 소조불상의 틀[范],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소조불상의 틀 등은 고구려에서 이미 6세기 또는 그 이전부터 소조불상의 제작이 활발했음을 말해준다.⁵⁹⁾ 마찬가지로 백제지역에서도 부여 정림사지를 시작으로 11개소가 넘는 곳에서 소조상편들이 출토하였다.⁶⁰⁾ 백

58)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찍이 문명대에 의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文明大, 앞의 논문, 1973, 23쪽 참조.

59) 文明大, <元五里寺址 塑佛像의 研究 - 高句麗千佛像 造成과 관련하여 - > 《考古美術》 150, 1981, 58~70쪽 ; 梁銀景, <高句麗 塑造佛像과 中國 塑造佛像과의 關係> 《東北亞歷史論叢》 24, 2009, 301~361쪽 참조.



〈도 12〉 제석사지 소조천부상 두부, 백제 639년경, 국립전주박물관, 익산 제석사지 폐기장출토

제의 7세기 소조상의 예를 보면, 청양 본의리 가마터에서 발견된 폭 280cm, 높이 100cm의 대형 소조 대좌⁶¹⁾에서 보이듯이 규모가 커지고, 帝釋寺址 출토 天部像(도 12)에서처럼 사실감이 돋보이는 소조상이 전하고 있어⁶²⁾ 7세기 전반의 백제소조불 제작기법은 다양하게 발전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천왕사지 소조신장상 제작을 양지가 맡아 지휘했다고 해도, 그 48구의 벽전을 제작하는 실제 작업에는 삼국통일이라는 정치·사회적 변동에 의해 고구려나 백제에서 건너온 장인들이 그들의

축적된 제작기술을 발휘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작기술과 관련한 또 하나의 문제는 과학적 정밀분석 자료에 근거

60) 文明大, <扶餘 定林寺터에서 나온 佛像과 佛像과 陶俑> 《季刊美術》 1981, 가을호 : 《관불과 고졸미》 한국의 불상 조각 1, 예경, 2003 ; 李炳鎬, <부여 정림사지 출토 소조상의 제작기법과 봉안장소> 《美術資料》 72·73, 2005 : <부여 정림사지 출토 소조상의 제작시기와 계통> 《美術資料》 74, 2006 : <百濟泗泚時期塑像의 展開過程> 《奈良美術研究》 10, 23~52쪽, 2010 ; 梁銀景, <百濟 扶蘇山寺址 出土品の 再檢討와 寺址의 性格> 《百濟研究》 52, 2010, 66~107쪽 참조.

61) 朴永福, <청양 도제불상대좌 조사보고> 《美術資料》 49, 1992, 64~91쪽 참조.

62) 梁銀景, <百濟 帝釋寺址 출토 塑造像의 분석과 목탑지를 통한 봉안원형 추정> 《湖西考古學》 23, 2010.



〈도 13〉 귀면와, 통일신라, 경주 사천왕사지출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한 미술사적 접근이다. 오늘날 보존과학은 과거에 비해 크게 발전하여 소조신장상에 대한 과학적 정밀분석이 가능해졌다. 이 과학적 분석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미술사적 연구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소조신장상과 같은 대형 벽전의 제작은 당시로서는 첨단 소성기술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조신장상은 벽전으로서 사천왕사 건축에 사용된 기와들과 같은 가마[窯]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일부 鬼面瓦(도 13)가 소조신장상의 악귀와 형태면에서 유사하다는 견해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제기되기도 하였다. 소조신장상이 기와가마에서 소성되었다면 당시 조각장과 瓦工 사이의 합작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녹유를 입혀 소성한 소조신장상과 녹유전 역시 그 기법상 유사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유기법을 포함한 대형벽전의 제작기법이 신라에 전해진 경로와 구체적인



〈도 14〉 소조나발, 통일신라, 경주 사천왕사지출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제작기법의 문제들이 과학적 분석으로 얻어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파악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이를 통해서 새로운 양식의 유입문제나 존명의 규명에도 도움이 되는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 본다.

사천왕사 불교조각의 연구는 소조신장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연구를 넘어서 금당의 주요 존상, 오방신상, 동서목탑 내부의 존상 등, 사천왕사 불교조각 전반에 걸친 복원적 고찰로 그 중심을 옮겨 연구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소조신장상들이 보여주는 뛰어난 조형성과 오늘날 사천왕사와 관련된 불교조각이 이 상들 뿐이라는 점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관심이 모여졌던 것은 사실이나 사천왕사 불교조각 전체에서 볼 때, 소조신장상은 목탑 기단부를 장식하는 벽전이었으며 사천왕사에는 이 밖에도 금당과 동·서 목탑 내부에 당시 예배존상으로 제작된 여러 조각들이 봉안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들에 대한 유추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행히 발굴을 통해서 불상의 소조나발(도 14)과 소조상의 파편들이 출토되어 소조신장상 외에도 금당이나 동·서 목탑에 소조상이 봉안되어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소조신장상을 통해 확인되는 새로운 사실주의 양식이 사천왕사의 다른 불교조각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고찰과 함께, 소조신

장상과 같은 통일기 소조상에서 형성된 불교조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통일신라 금동불상 및 석불상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한 미술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탐색이 될 것이다.

사천왕사의 발굴은 반세기 이상 미술사적으로 모호했던 의문점들을 상당부분 밝히고 새로운 논거를 제시해 주었다. 이것은 자료의 해석과 논증, 미술사적 위치 비정 등도 중요하지만, 자료가 미흡한 경우는 어렵고 힘든 연구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성과나 견해도 그 논거가 박약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세운 가설이 이와 상치되는 단 한 두 점의 문헌이나 발굴 자료에 의해 일거에 무너지게 됨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미술사연구에 있어 유물 뿐 아니라 현장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폭넓은 실증적 조사연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앞으로 소조신장상을 비롯한 사천왕사 불교조각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관련 문헌자료 조사, 중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작품 예의 비교·조사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탑 기단부의 면석으로 제작된 소조신장상의 성격은 사천왕사라는 사찰공간 속에서 이 벽전들이 갖는 건축적, 신앙적, 의례적 기능이 밝혀져야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므로 불교조각 뿐 아니라 사찰건축과 고고학, 불교사상사 등, 인접 분야와의 연계 속에서 고찰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소조신장상의 여러 문제를 밝혀줄 새로운 논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서 통일신라 초 불교조각사를 재조명하는 연구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사천왕사의 창건은 통일초 신라의 최신 기술과 뛰어난 장인들이 동

원되었을 거국적인 佛事였다. 당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문두루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불교신앙이 형상화되었고, 쌍탑식 가람배치를 비롯해서 새로운 도상과 양식의 불교존상 등 여러 면에서 창의적이고 참신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문헌 상에 전하는 오방신상이나 금당에 봉안되었던 주요 존상들은 전하지 않지만 현존하는 소조신장상들은 사천왕사에서 이루어진 높은 수준의 불교미술을 보여주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되어 온 사천왕사 소조신장상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와 논의는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밝히고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그 동안 제기되었던 논의와 추정이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일시에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고 그 논거를 잃게 된 점은 앞으로의 고대 불교조각사 연구에서 현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관련 작품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연구와 함께 문헌기록의 조사와 분석의 바탕 위에서 추정과 가설 제기가 있어야 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그 실증적 기반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은 우리 고대 미술사학이 지향해야할 점이 될 것이다.

향후 사천왕사 불교조각의 연구는 소조신장상 명칭 중심의 기존 연구를 넘어서 신장상의 양식, 제작기법에 대한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사천왕사 불교조각 전체로 연구의 대상을 확대하여 통일신라와 당, 일본 불교조각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동시기의 동아시아 불교조각을 재조명하고 사천왕사 불교조각을 자리매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통일초 형성되기 시작한 신라 불교조각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파악과 정리가 가능해지고 더불어 신장상의 명칭문제와 같은 기존의 논제에 대해서도 해결의 논거를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大藏經》, 《新修大藏經》,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古蹟圖譜》 5, 朝鮮總督府, 1917.

《博物館陳列品圖鑑》 1, 朝鮮總督府, 1918.

《博物館陳列品圖鑑》 2, 朝鮮總督府, 1919.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查報告》 1, 朝鮮總督府, 1922.

藤島亥治郎, 《朝鮮建築史論》, 1930.

高裕燮, 《조선탑과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8.

辛鍾遠, 《新羅初期佛教史研究》, 민족사, 1992.

《래여애반다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2006.

《발굴에서 전시까지》,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청, 2007.

《四天王寺》,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국립경주박물관, 2009.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 국립중앙박물관, 2008.

姜友邦, <사천왕사지 출토 채유사천왕부조상의 복원적 고찰> 《美術資料》 25, 1979.

_____, <新良志論 良志의 활동기와 작품세계> 《美術資料》 47, 1991.

金福順, <興輪寺와 七處伽藍> 《新羅文化》 20, 2002.

_____, <신라 왕경사찰의 분포와 체계> 《신라왕경의 구조와 체계》, 2006.

_____, <《三國遺事》 ‘명당신인’조의 구성과 신인종 성립의 문제> 《감동과 신통을 보여준 신라인》,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32, 2011.

金相鉉, <사천왕사의 창건과 의의> 《新羅와 狼山》,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7, 1996.

김태식, <文豆婁法과 경주 四天王寺址 출토유물> 《新羅史學報》 21, 2011.

文明大, <新羅 神印宗 研究 - 新羅密敎와 統一新羅社會 - > 《震檀學報》 41, 1976.

_____, <良志와 그의 作品論> 《佛敎美術》 1, 1973.

- _____, <新羅 大彫刻匠 良志論에 대한 새로운 해석> 《美術史學研究》 232, 2001.
- 朴泰華, <新羅時代의 密敎 傳來考> 《曉城趙明基博士華甲記念 佛敎史學論叢》, 1965.
- 朴亨國, <韓國의 浮彫形態의 佛敎集合尊像에 關する 綜合調査> 《平成16年度-平成18年度科學研究 費補助金 基盤研究B 海外學術研究成果報告書》, 2008.
- 辛鍾遠, <삼국유사 <양지사식> 조, 註釋> 《古文化》 40·41, 1992.
- _____, <《三國遺事》善德王知幾三事條의 몇 가지 問題> 《新羅와 狼山》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7, 1996.
- 沈盈伸, <통일신라시대 四天王像 연구> 《美術史學研究》 216, 1997.
- 奧平武彦, <慶州四天王寺出土 綠釉四天王像의 甞> 《茶わん》 6~7, 1936.
- 李炳鎬, <부여 정림사지 출토 소조상의 제작기법과 봉안장소> 《美術資料》 7 2·73, 2005.
- _____, <부여 정림사지 출토 소조상의 제작시기와 계통> 《美術資料》 74, 2006.
- 梁銀景, <百濟 帝釋寺址 출토 塑造像의 분석과 목탑지를 통한 봉안원형 추정> 《湖西考古學》 23, 2010.
- 李泳鎬, <新羅中代 王室寺院의 官寺的 機能> 《韓國史研究》 43, 1983.
- 이한형·정민호·문은정·박지연·김수경·최장미·한민수, <경주 사천왕사지 녹유 전의 녹유 특성 연구> 《文化財》 44-3, 2011.
- 林玲愛, <四天王寺址 塑造像의 尊名> 《美術史論壇》 27, 2008.
- 張忠植, <錫杖寺址 出土遺物과 釋良志의 彫刻 遺風> 《新羅文化》 3·4, 1987.
- _____, <新羅 狼山遺蹟의 諸問題> 《新羅와 狼山》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7, 1996.
- 曹元榮, <신라중대 신인종의 성립과 그 미술> 《釜山史學》 40·41, 2001.
- 秦弘彥, <四天王像甞博의 一例> 《考古美術》 2-3, 통권 8호, 1964.
- 崔장미·車順喆, <2006년도 사천왕사지 발굴조사의 성과와 의의> 《新羅史學報》 8, 2006.
- 韓政鎬, <신라 쌍탑가람의 출현과 신앙적 배경> 《석당논총》 46, 2010.

ABSTRACT

Review and Main Issues on Studies of the Glazed Tiles of the Guardian Images at Sacheonwangsa Temple-Site

Songeun Choe

This paper investigates studies on the glazed tile guardian images of Sacheonwangsa at Geongju: on their identity, on the sculptor Yangji, and on their construction method.

The identity of the guardians has been presumed to be either the Four Heavenly Kings or the Eight Kinds of Divine Guardians. The excavation of 2006, however, revealed that 24 glazed tiles showing three different types of guardians were placed on the base part of each pagoda to the east and west, numbering 48 pieces all together. After the excavation, the identity of the guardians was assumed to be guardian kings protecting the pagodas.

With the textual evidences and this excavation result, how can we address the Buddhist images of Sacheonwangsa from now on? We need to have broad perspective of the Buddhist sculptures of Sacheonwangsa in relation with other Buddhist images of the East Asia, particularly China and Japan, in order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ddhist images of Sacheonwangsa including these glazed tile guardian images. It is hoped this will lead us in an approach

to apprehending the paradigm of Buddhist sculpture of the early Unified Silla period.

Key words : Sacheonwangsa(Temple of Four Heavenly Kings), Priest Yangji, Glazed tile of Guardian images, Four Heavenly Kings, Eight Kinds of Divine Guardians, Guardian Kings, Mudura

논문 투고일 : 2012. 11. 30. 심사 완료일 : 2012. 12. 8. 게재 확정일 : 2012. 12. 15.